통화 정책 지문 분석

경.제.싫.어. (경제 알레르기 있는 이과 입니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경알못이라 모르는데

그냥 '이번 분기 금리 4%'라고 하면 4% 되는거 아니었어?

말하는거 보니까 (이자율을) 무슨 통화정책? 그런걸 써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금리로 맞추는 같데

접근시킨다고 말하는거 보니 정책 쓴다고 정확히 정책적으로 결정된 금리가 되는건 아닌듯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이게 기본 원리인듯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임 → 이자율↓ → 소비&투자↑ → 경제 활성화 → 물가 상승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로 자명한 말 같은데

그런데 경제 변동을 어떻게 예측하는거지?

지문에서 예시 든 걸로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한다면

경기가 침체될 것을 예상해서

침체 되기 전에 기준 금리를 인하시켜야

(즉 침체 되기 전에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여야)

소비와 투자가 늘어서 침체를 막는다는 거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기둘 수 없다.

???

왜??? 민간의 신뢰가 무슨 상관?

이해안되네 일단 넘어가야 하나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통화 정책을 쓰는 거군

준칙주의... 설명 보니까 융통성 없는 사고방식인듯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음... 의미는 알겠는데

그래서 중앙 은행에 대한 신뢰가 왜 중요?...

아 조금 알겠다

그 신뢰성이 하여금 민간의 물가 불안 심리를 없애 준다는 거구나

즉 통화정책은 궁극적으로 민간인들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음... 내 나름대로 이해하면

1. 준칙주의 지키기 어렵다

2. 어쨌든 통화정책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데 준칙에만 얽매이면 그 궁극적 목표가 이뤄지지 않는다.

→ 재량주의 가자!

정책 신뢰성이 중요하지만 이 정책 신뢰성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경제 안정)가 준칙만 지키는 주의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구나.